

시동 켜 카카오킴, 택시는 파업

업계들, 서울 광화문에 모여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열어 "불법 운송행위" 반발 실생활서 일어나는 운행 횡포에 대한 소비자 반감 등 택시업계 자체 비난 여론 우세

카카오 킴 서비스가 운전자를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자 택시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카카오 킴은 출퇴근 시간 목적지가 비슷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택시업계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돌입하며 카카오 킴 출시에 대해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운송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보다 택시업계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이 같은 반응에는 운송거부, 난폭 운전 등 실생활에서 흔히 확인되는 택시 운행 횡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파업을 벌일 때 여론이 악화되는 경우는 흔하다. 오히려 버스타지 않겠다, 오지마라 등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벌이는 파업이, '노조 이익을 위해

교통 편의를 저해 한다'는 논리에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법 81조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카카오 킴 서비스가 택시업계를 붕괴시킬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관계자는 "카풀 서비스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적 제1 양 호도하지만 전국 자가용

2200만대를 모두 영업하게 만드는 꼴이다"며 "경쟁이 과열되면서 카풀업체인 중간에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재벌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세업체인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대리운전업체까지 진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정경영을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업체 '럭시'를 인수하며 올해 안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지난 16일 운전자 사전 모집을 시작했다. /송효철 기자

아동수당 실무자 간담회

전주시는 18일 아동수당 실무자 간담회를 열고 담당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만0세~5세 자녀를 양육하는 전주 시민들은 첫 번째 아동수당 10만원을 지난 9월 21일 첫 지급 받는데 이어 오는 25일 두 번째 아동수당을 수령하게 된다. 당초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재산 상위 10%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별적 제도로 바뀌면서 이를 위해 전주시 동주민센터·구청·시 여성가족과 실무자 100여명은 지난 6월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첫 번째 아동수당을 성공적으로 지급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직 아동수당을 미신청한 961명에게도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 시연회가 18일 전주시 덕진구 팔각정로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주시 도로제설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제설차량으로 눈을 치우는 시연을 하고 있다.

겨울철 안전한 도로 만들기 집중

전주시가 올 겨울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을 펼친다. 시는 18일 전주산업단지 팔각정로(휴비스 전주2공장~팔복소방파출소사거리)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35개동 제설담당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2019년 제설대책 상황점검 및 제설장비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연회에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되는 설해대비 상황관리체계에 대해 점검

했다. 또한, 참석한 제설 담당 공무원들은 시가 확보하고 있는 대형살포기와 소형살포기, 트럭장착용·트랙터장착용 전동살포(제설기), 살수차 등 제설차량별 특성과 운전조작요령, 제설작업 노하우 등을 익혔다.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제설하는 용도로 쓰이는 소형살포기의 경우, 기존에 사용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직접 더블캡에 장착하는 방법과 작업요령 주의사항 등 운전 노하우를 전파했으며 연화갈슌 살포 등을 직접 시연했다. 이와 함께, 제설작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내 집 앞 눈은 내 손으로'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현재 134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해 강설에 대비하고 있으며 연화갈슌 등 제설차제도 2,220톤을 확보했다. 시는 또 갑작스런 폭설이 내릴 경우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시 외곽 지역 마을진입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외각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트랙터를 활용한 시민제설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코레일 관광명소 홍보전 참가

전주시가 전라선 철도와 연계한 여행상품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전국관광명소 릴레이 홍보전'에 참가한다. 18일 시와 코레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역에서 열리는 '코레일 전국관광명소 릴레이 홍보전'에 참가해 전국 10여 개 지자체와 함께 전주비밀bacher, 테마여행 광역투어버스, 외국인 대상 유네스코 전주여행상품 등 철도를 이용한 전주 여행상품을 홍보할 전주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팔각정로 도로개설공사 현장서 강설대비 제설장비 시연

시내버스의 상생·발전 머리 맞대다

오늘까지 전주시민의회버스위원회 출범 4주년 워크숍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버스 노·사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었다. 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무주 나볼리조트에서 시민의회버스위원회에 참여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출범 4주년을 기념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워크숍을 통해 발제자와 참석자들의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전주시내버스의 혁신과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전주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지난 2014년 고질적인 파업 등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민·정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일2교대 추진 △통행시간 단축과 실제 이동자 이동중심을 고려한 노선개편 시행 △적정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원가절감 경영합리화를 위한 재정심의 등 시내버스 관련 굵직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약 4년 동안 활동해 온 시민의회버스위원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앞으로 전주시내버스의 개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노·사·민·정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버스 노·사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었다. 시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무주 나볼리조트에서 시민의회버스위원회에 참여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출범 4주년을 기념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사항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 시내버스 상생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내버스에 대한 이해와 시내버스위원회 1기 성과 및 2기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는 그냥 버스기사입니다'의 저자인 허혁 전일여객 기사와 특강과 '버스운송업의 위기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강연했다. 이어서, '상생과 발전'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의 '2019년 전주시 대중교통 정책' △노광진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노무법률부국장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염성복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정책실장의 '전주 시내버스 개혁방안' △조정범 전일여객 영업부장의 '전주 시내버스 1일2교대에 대한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질의·응답시간과 분과워크

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무작위로 전산추첨... 당첨되면 온누리상품권 제공

전주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다. 시는 지난 17일 지방세(시세)를 3회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무작위로 전산추첨방식에 의한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완산구 100명과 덕진구 100명 등 총 200명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시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전주시민이다. 시는 이번 추첨결과를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첨된 200명에 대해서

는 당첨 안내문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3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상용 시 행정과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 분위기 조성 및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하여 납세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